

로동신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7호 [무게 제24975호] 주제104(2015)년 7월 16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간직하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주제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총정의 한 마음을 간직하고 제신성 국장 송근일, 책임부원들인 박철만, 한철수, 부원들인 천병호, 전창규, 원근혁, 리경숙, 리광혁은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많은 자재들을 지원하는 등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인민보안부 산하단위 지도원 봉영화는 주제사상교양의 전달,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을 더욱 빛내는데 이바지할 일군들에게 정성다해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었다.

남이 갈수록 더해간다는 절세위원들에 대한 사무처는 그리움을 안고 조선로동당발전은행 부원 민수리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판으로 꾸리는 데 깨끗한 공민적정신을 바치었다.

대의건설지도국 책임부원 리인규, 부원들인 리복국, 박병철, 문서원 오연미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완벽하게 꾸리는 사업에 앞장서고 중요대상설치지원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주제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열의밑에 체육성 산하단위 풍역

원 김립양도 많은 자재와 물자들을 지원하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대의문화련락위원회 부원 김은우, 대성백화점 노동자 주혜영은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꾸리기에 동원된 건설자들의 생활에도 뜨거운 정을 기울였다.

절세위원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려는 순결한 마음안고 간석지건설지도국 산하단위 노동자 정부미는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보내주어 건설을 다그치는데 기여하였다.

온하지도국 온하기술준비소 감독원 박순경, 중앙산업미술지도국 심사원 리연도에 물심방문의 지원으로 건설자들의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맡겨진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도와주었다.

철도현대화설계연구소 설계원 림현일, 대동강구역 종합식당 동문국수집 노동자 김경희는 건설장에서 총정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도 잘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감격 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70돐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6월 24일 동포 엔터프라이즈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 관련한 공보가 발표되었다.

공보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선해방 70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마련맹맹대성발전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불멸의 업적과 공헌,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명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만마련민들

속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마련맹맹대성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양근지역위원회 비서인 리 원이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뜻깊은 날들을 맞으며 경총집회, 친선교과, 영화감상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 위업에 연대성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 결성식이 6월 24일 동포 엔터프라이즈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선출위원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중공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포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청

칭치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 다채로운 경총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도이월란드공산당준비위원회가 6월 22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이월란드공산당 위원장 로르스텐 쇠비치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날에 즈음하여 출판보도물에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선에 경총대표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사업이 끝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추천사업이 15일까지 전부 끝났다.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 자적성의를 위한 선거자의들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총부로서 본분과 의무를 다해나갈수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이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각급 선거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선거, 분구들에 공식하고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전체 선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오신 인민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함단을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형 경제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세계계급교양과 계급투쟁을 더욱 심도있게 벌려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연구제출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중앙과 평양시인의 당, 행정, 근로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부도, 당일군양성기관, 혁명사적부도 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시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반세계계급교양과 계급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 모두가 투철한 주적관을 지니고 반세계계급적 적적 멸치나사도록 하겠다는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 토론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현시기 반세계계급교양, 계급투쟁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세계계급교양과 계급투쟁을 더욱 심도있게 벌려나가자

중 앙 연 구 토 론 회 진 행

목적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는 인간의 참다운 삶과 행복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데없이 귀중한 요망이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 일본반동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눈에는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제도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근대와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최근 미제와 남조선피괴당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침식시키고보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으며 어중이떠중이들을 내몰아 우리에게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다 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권위까지 함부로 헐뜯으며 미쳐날뛰고있다.

피를 물고 날뛰는 송양이무리에게 그 어떤 《선의》를 기대하

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민족부대의 속된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대결광증에 들며 최후발악하는 현수들을 썩종자도 없이 모조리 쏘아버려야 한다.

김일성총대학 부총장 정만호는 《투철한 주적관을 심어주는것은 반세계계급교양의 중심과업》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투철한 주적관을 심어주는것은 선만군민을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쥐고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리는 명호로 키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회신앞에 나선 사수가 목표를 정확히 포착하여야 명중탄을 퍼부을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주적관을 똑똑히 가져야 현수들의 판가리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다.

투철한 주적관을 심어주는것은 반세계계급교양의 중심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적관이 반세계계급교양의 핵심내용이기에 때문이다.

반세계계급교양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착취계급, 적대계급을 반대하여 전격히 투쟁하려는 자각이여 의지이다.

투철한 반세계계급교양은 혁명의 원수, 인민의 원수가 어떤 놈들이냐에 대한 인식 특히 우리의 주적은 적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그 기초를 두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세계계급교양과 계급투쟁을 더욱 심도있게 벌려나가자

중 앙 연 구 토 론 회 진 행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감격 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추천사업이 15일까지 전부 끝났다.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 자적성의를 위한 선거자의들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총부로서 본분과 의무를 다해나갈수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이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각급 선거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선거, 분구들에 공식하고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전체 선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오신 인민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함단을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반세계계급교양과 계급투쟁을 더욱 심도있게 벌려나가자

중 앙 연 구 토 론 회 진 행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커다란 감격 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추천사업이 15일까지 전부 끝났다.

전국각지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 자적성의를 위한 선거자의들에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총부로서 본분과 의무를 다해나갈수 있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일군들이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되었다.

각급 선거위원회에서는 추천된 대의원후보자를 선거, 분구들에 공식하고 선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전체 선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세워주시고 빛내어오신 인민주권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함단을 우월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의 열기모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훌륭히 빛내기 위하여 전국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호응하는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전위들의 열기모임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 청년동맹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낭독되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황해남도려단청년동맹, 속도청년동맹, 각대지국 대대장 김로길, 북부청년동맹대원 대원 김철민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창립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청년전위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병도의 전기간 독창적인 청년중시, 청년사람의 정치를 펼치시고 이 땅에 청년강국의 새 역사를 안아오신 절세위원들에 대한 사무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조선청년운동의 이말로 백두산선출위원들의 손길이 새 시작되고 장성강화되어온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혁명의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청년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생사를 같이하는 동지로 투쟁대오에 묶어주시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시였으며 투쟁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구현하시어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으신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해방봉을 청년들에게 안겨주시고 청년동맹을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게 하여주시였으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을 굳건히 이어주시었다.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모셔 베푸어주시 시작된 위대한 청년운동이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청년들을 선군혁명의 최후대, 당의 믿음직한 인력부대로 내세워주시고 밀고 힘찬 발전조건설정을 몸소 찾으시어 청년동맹대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는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과 청년동맹조직들이 수백만 조선청년들의 순결하고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청년대중의 무궁무진한 전진력을 비상히 분출시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자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지배인 김정호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들인 리숙영, 김음평, 기술준비원 김현아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공장을 찾았으니 김가공품들 생산을 주체적으로 로해나간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하루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대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하여 혁신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적성과로 만들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가치수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틀어쥐고 김가루, 각종 조미김, 김줄임과 같은 특색있는 가공품들을 만들어낼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며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김가공품의 기계화비율을 높이며 제품

포장을 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했다.

일군들이 생산을 높이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힘있게 불려일어나는 당정책의 열렬한 실행자, 결사관철의 철저한 투사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자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지배인 김정호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들인 리숙영, 김음평, 기술준비원 김현아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공장을 찾았으니 김가공품들 생산을 주체적으로 로해나간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하루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대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하여 혁신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적성과로 만들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가치수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틀어쥐고 김가루, 각종 조미김, 김줄임과 같은 특색있는 가공품들을 만들어낼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며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김가공품의 기계화비율을 높이며 제품

포장을 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했다.

일군들이 생산을 높이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힘있게 불려일어나는 당정책의 열렬한 실행자, 결사관철의 철저한 투사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김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기여하자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대경기가공공장 종업원들의 열기모임이 15일에 진행되었다.

지배인 김정호의 보고에 이어 작업반장들인 리숙영, 김음평, 기술준비원 김현아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일떠선 공장을 찾았으니 김가공품들 생산을 주체적으로 로해나간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고있는 건강식품인 김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시였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식생활을 하루하루 높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대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생산하여 혁신을 일으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적성과로 만들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가치수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우선으로 틀어쥐고 김가루, 각종 조미김, 김줄임과 같은 특색있는 가공품들을 만들어낼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식의 새로운 김가공방법을 확립하며 현대적인 생산공정들을 꾸려놓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김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김가공품의 기계화비율을 높이며 제품

포장을 잘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했다.

일군들이 생산을 높이기 위해 늘 머리를 쓰고 대담하게 작전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앞장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힘있게 불려일어나는 당정책의 열렬한 실행자, 결사관철의 철저한 투사가 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청년들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백두산 선군청년 1호발전소 건설장에서

당앞에 결의다진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며 백두산 선군청년들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백두산 선군청년들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백두산 선군청년들의 위용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간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현지도 이후 불과 석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백두산선군청년동맹대원들과 건설자들은 1호발전소공사에 총력을 집중하여 착공후 최고실적보다 1.5배 이상에 달하는 연체공률기록을 세웠다. 2호물길굴비복공사가 95%계선을 돌파하고 송전선공사도 날이 갈수록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승리의 정점을 향하여 임하는 그 모든 창조물들은 당의 결심은 곧 우리의 실천임을 자랑스럽게, 땀방울이 증명해나가는 백두청춘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의 결성체, 수령결사옹위의 성벽이다. 70년의 년풍을 새기는 어머니 우리 당의 창건 기념일에 드리는 가장 큰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날도 우리의 청년전위들과 건설자들은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새로운 조선속도창조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진보도반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백두산선군청년1호발전소 연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골재선별운반능력을 높여 발전소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언제무로 오르는 자동차기둥기



혼합물보장을 신속히



참신하게 벌어지고 있는 화선식정지사업



천년책임, 만년보증



청춘다리를 만년대계로!

미국산 엔무새 — 박근혜의 기만적인 대화라령에 온 겨레가 침을 뱉는다

전국련합근로단체대변인담화

요즘 남조선피괴당자들이 마치 북한판계의 개선에 관심이라고 있고 대화의 성의가 있는듯이 입나발을 끝날 붙여대고 있다.

안에서는 피괴통일부 장관 홍용표가 북한판계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것이기에 대화에 의문을 품지 않고 그것이 성사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밖에서는 피괴의교부 장관 윤병세가 말껌이 닿는 곳마다에서 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강화와 대결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회기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있는것처럼 침입을 위도록 책쳐대고있다.

세상사람들이 어안이 병병해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송장내를 풍기며 까속소리를 내던 카마카리 갑자기 따끈한 말을 품은 검정잡으로 변한듯 한강을 주기때문이다.

원래 피괴당국자들의 공통점은 그가 누구든 자기의 독자적인 사유기능도, 자기의 고유한 목소리도 없는것이다.

있다면 평화대가 써준 각본을 한글자라도 드릴새라 졸출 읽어내는것뿐이다.

그것은 원문작성자가 다름아닌 미국 상전이고 박근혜가 청와대의 인방에 들고 앉아 그 실행을 사납게 감독하고 맹렬히 지휘하기때문이다.

한마디로 피괴당국자들은 하나같이 박근혜가 치마바람을 일으키는대로 혀를 놀려대고 팔다리를 너털거리기때문이다.

러늘고말하여 미국상전이 일으키는 박근혜의 치마바람은 기가 막힐 정도로 번드르르다.

치마가 이쪽으로 휘 바람을 일으키면 그 줄개들이 눈을 부릅뜨고 대결각성을 돌구어대고 저쪽으로 휘 돌리면 금시 언제 그랬던가같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 치마꼬리를 한번 휘둘렀다싶으면 대결인지 대화인지 알수 없는 혼란된 소리를 질러댄다.

한마디로 박근혜의 치마속 깊숙한 곳까지 미국의 검은 터럭손이 뻗쳐있기때문이다.

지난 10일에 있던 일만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이날 박근혜는 그 무슨 《통일준비위원회간담회(중도론회)》를 주관하면서 참으로 역스럽게 늘어났다.

토론회에서 박근혜는 느닷없이 우리 인민들의 《결핵과 풍진을 예방》하기 위한 확연하고 항생제를 지원한다는것으로 북한판계개선의 시작을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놓으며 저들이 《더 늦기 전에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이라고 《북이 대화의 마당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뇌까려댄다.

나중에는 통변지같이 조선반도를 《진강하게 지켜나가야 할 공동의 책임》에 대해 저들이대면서 《북도 계속 외면할수는 없을것》이라는 가을뽕뽕같은 소리까지 늘어놓았다.

박근혜의 이러한 언동은 변신술에 능한 카멜레온도 무색케 할 화성성과 간특성의 극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TV화면을 비롯한 공식석상에 머리를 내밀고 우리의 대화공세를 골 《위협조성》이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대응》과 《단호한 응징》을 떠들어댄것이 박근혜였기때문이다.

《국도의 공포정치》와 《세계불안정》으로 우리가 골 《봉피뿔》이라고 췌쳐대면서 《북인권문제》를 더이상 묵인할수 없다고 독기어린 악담을 쏟아냈던것으로도 모자라 서울에 《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한 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일반적으로 사유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자기가 품은 생각을 심화시키거나 지속시키면서 목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그러나 박근혜의 의식은 완전마비된 상태에서 정신이 들락날락하고있다고 해야 옳을것이다.

머리나 제것이 없는 머리로이어서 겨레의 밝은 전도가 어려웠던 귀중하고 신성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애당초 리해할수조차 없게 되어 있다.

몸통위에 머리통은 붙어있지만 흑백 분도의 능수인 미국의 조종에 의해서만 대외활동을 하게끔 되어있는 철지난 미국산 엔무새가 바로 박근혜이기때문이다.

올해 우리는 북한판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정도이상으로 하겠다.

조국해방 일흔둘이 되는 올해에 영명한 우리의 최고수뇌부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자는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력사적인 호소를 남조선당국에 보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위대한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북한판계를 개선하는데 결심히 필요한 실천적조치들을 내놓고 그를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력사적인 호소를 《한미공조분쇄를 노린 대남전략》으로, 《국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화공세》로 매도하면서 그에 역행하는 대결정동들을 국단의 지경에서 벌려놓은것이 바로 박근혜와 그 폐당이다.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으로 북한판계에서 대적인, 대변력을 가져오자는 우리의 진정어린 호소에 피괴들은 인강쓰레기들과 미국과 일본에서 끌어들이는 악질분자들까지 군사분계선에 내몰아 기세를 부리게 하는것으로 반발해나갔다.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 동족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이므로 무모한 그 모든 전쟁소동을 중지하자는 평화에의적인 제안조차도 피괴들은 《남조선-미국연합체제》가 존재하는 한 《훈련은 계속될것》이라며 광란적인 북침연습을 지속적인 강행으로 맞서나왔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대단합, 대단결을 이루자고 열렬히 호소하는데 대해서는 박근혜의 《소문일론》, 《대박동일론》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2015년은 죽음의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통일을 이룩하자.》, 《한국중도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험악한 망언들로 대꾸해나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용납 못할 대결망동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정부와 국방위원회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권위있는 기관들의 명의로 동맹국적인 현 북한판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들을 단계별로 연이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우리의 진정이 담긴 호소에 언젠가 미국상전이 써준 각본대로 대응하는 추태를 부렸다.

얼마전 피괴들이 그 무슨 《독자적인 금융제제》라는것을 발표한다고 오바마가 《강도대북추가제제》를 책쳐대고 그 리행을 위해 미국무장관이 직접 윤병세를 밀실해 불러들여 《대북》압박강화지령을 내린데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선택한 것이다.

어른들이 북과 남사이에 직접적인 군사적행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독자적인 금융제제》는 가장 공격적인 동맹국적행동이며 철두철미 상전의 주문에 따른 대미 추종의 산물이라고 단리한것은 우연치 않을것이다.

원래 겉과 속이 판관 다르고 거짓말을 일삼는것은 저러나 개성화된 박근혜의 특징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어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박근혜에게는 그것이 자기 속심을 감추고 상대를 기만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기만술, 거짓말이야말로 정치가의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간주하고있는 박근혜는 정치가로 립신양명하여 부기를 누리자면 화려한 거짓말로 필수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넘기고 허위와 기만, 위선으로 생을 판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박근혜가 가족은 웃어도 살은 웃지 않는 1인2면배우같은 연기술에 능한것도 이때문이다.

사실 박근혜가 한조각의 망심이라고 품고있다면 우리를 대결의 상대라고 떠들면서 《남조선》에 나오라고 왜가리짓을 벌수 없으며 《5.24조치》유지가 《부동의 원칙》이라고 주절대면서도 접촉과 교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자가당착적인 궤변을 매달리지 못할것이다.

외세에 의존하고 사대애 정교매국을 일삼던 백치기 되어 만사판의 조소거리가 되는 법이다.

한일모 두입소리, 열일소리들 마구 발설해대면서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제 소리에 제가 속아넘어가면저도 박근혜는 그것이 수처이고 망신지조조차 모르고있다.

박근혜의 뒤를 따라 미국이 휘파람을 불면 금시 온몸이 꼬리가 되어 이양을 떨어대고 부추면 동족을 향해 온몸이 그대로 피를 이발을 드러낸 주둥이가 되어 있어대는것이 다름아닌 피괴들이다.

숨이에 찢어지고 천비에 찢고 종이에 들뜨면 박근혜때처럼 늘어대게 된다.

그것이 어느 지경인가 하는것은 통일부장관명명장을 받은 홍용표가 기자들이 《에파(강경파)》인가, 《비둘기파(유화파)》인가고 묻는 말에 《나는 에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하면서 그 어떤 독자적인 주견이나 철학도 없이 오직 상전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철지난 철미파, 박근혜의 줄개라는것을 현연스럽게 자인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자가 식민지강점군의 두목들 등에 업고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며 사진까지 찍는 추태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굴욕의 극치로서 피괴들의 천미굴종이 어느 정도로

참담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남조선피괴들이 북한판계문제를 놓고도 마치 닭발과 오리발도 분간하지 못하고 매장우에 꺼내놓고 싸구려를 해치는 천박한 장사군처럼 대화와 대결이라는 문구의 의미도 헤아리지 못하는 천하머저리가 되어버린것은 철두철미 미국이 시키는대로 살아가는데 습관되었기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것은 깨닫지 못하는것이라고 하였다.

깨닫고나면 그래도 구제할 가능성과 출로를 찾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천미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는 박근혜와 그 폐당은 북한판계의 개선방도가 무엇인지, 제가 할바가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순미사대에 취한채 동면하고있다.

외세의종으로 용한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외세의 버림에 의해 망하는 법이다.

우리 민족사를 어지럽힌 리승만이와 박정희의 비참한 말로가 바로 그러하였다.

은 겨레의 추상같은 책침으로 박근혜와 그 폐당에게 경고한다.

진심이 아닌 욕심으로, 권리가 아닌 허위로 더이상 민족을 우롱해대지 말아야 한다.

대방을 움직일 생각이 진정이라면 자기부터 움직이면 될것이다.

지금처럼 속에 칼을 품고 《세계통일》을 이룩할 홍심을 품은채 세인을 기만하기 위한 대화에 대하여 책쳐대면서 도 다른 대결로 시간이나 허송할 생각은 애당초 포기하는것이 좋다.

우리 노동계급은 민족의 우한거리인 박근혜와 그 폐당을 초고전력전기로에 처넣을 시간만을 고대하고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낫이 선 쇠스랑으로 역적폐당의 명줄을 내리찍는 심정으로 포전을 가우고 있다.

과학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증오와 복욕열기는 더는 견줄수 없게 되어있다.

우리 녀성들은 천하 못먹은 악녀, 슬쉬는 산소장으로 막연한 박근혜를 조선 녀성들의 평판에서 지워버리지 오라다.

은 민족은 녹거리 미국산 엔무새에 불파한 박근혜와 그 폐당이 지는 피파를 무마시켜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써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주제 104(2015)년 7월 15일 평 양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라, 축복받은 준마치녀들의 삶을

마치 그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듯 반가웠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의 1호 동진복에 나붙은 선거자명부에 우리가 취재실에서 낯을 익힌 방직공치녀들의 이름도 있었던 것이다. 우숙영, 우미영, 리금희, 함춘옥, 김설경... 빨리 보고싶었다. 로동자궁전에 넘치는 축복받은 준마치녀들의 삶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청년들을 교양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워주고 그들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이다. 품고있는 희망과 소원도 따듯이 헤아려주고 영광의 단상에 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아름다움을 꽃피고 피어나고 미풍 선구자로 자라나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것인가. 그 미풍 대오속에는 영광군도로보수관리대 황초령도소대원들도 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에서

들의 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찾아들었다. 우리 방직공치녀들에게 제일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헌신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곳곳에 깃들여있는 로동자합숙, 처녀들이 좋아하는 연분홍색과 미색이 조화를 이룬 복도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너가신 호실과 상침, 목욕탕, 전자도시실, 연세든지 찾아와 치료를 받을수 있는 치료실과 잘 꾸려진 미용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있는 그곳은 참으로 로동자들의 궁전이며 호텔이었다.

연 방직공치녀가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합숙의 모든것에 하도 마음이 끌려 지도모르게 놀러왔다는 우리 말에 처녀는 방긋 미소를 짓고말았다. 정갈하게 꾸려진 합숙방에서 처녀들의 웃음이 한창이었다. 차담방, 전영복, 박향금, 장향금등무들이 웃음을 흘리고있었다. 그들은 모두 직조종합직장 1직조직장의 혁신자직공들이었다. 준마치녀들의 아름다운 꿈을 알기 위해서 오르내리는 유평과락들, 떠나갈듯 넘치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높은 목표를 세우고 생애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절로 흥겨워졌다. 교대를 마친 직공들이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와 유평과락도 하고 고향에 위원의 소식도 전하며 회합과 방안에 넘친 생활을 즐기고있으니. 어찌 이럴뿐이랴. 복도의 곳곳에 놓인 소파들과 거기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처녀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밝았는가. 그들의 밝은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며 2호층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의 귀전에 흥겨운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2호층에 있는 대형액셀레비존에서 최반반주음악가제를 리용하여 처녀들이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하는 처녀들은 방직 종합직장 3정방직장 정방공들인 김복성, 리혜심등무들이었다. 언제나 준마치녀로 살고싶은 심정을 담아 부르는 그들의 노래소리가 합숙방에 울려 퍼졌다.

이렇게 소곤거리리는 처녀, 이호실에서 매일 혁신자라는 그는 1직조 직장의 리금희등무였다. 3년째 3년분 계획완수자가 되어 고향에 기쁜 소식을 전 해온 그는 4년분계획 완수자는

생명보다 귀중한 나의 조국

말하며 년간계획 완수자라는 부름도 성차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목공순영등처럼 직공영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직공영웅, 얼마나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인가. 조형희등무만이 아닌 공장 방직공들이 훌륭한 이 보금자리에서 어떤 아름다운 꿈을 자레우고있다. 당의 사랑과 은정에 목매어 부르는 노래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로동자합숙의 곳곳에서 울려나왔다. 자랑스러웠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 평범한 로동자들이 이처럼 최한한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나라의 행복을 받아안으며 로동의 보람을 한껏 느끼고있었다.

우리모두를 키우는 품

우리 나라에서는 전민적 인 무료교육제도가 실시되어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위한 학교교육뿐 아니라 일하면서 배우는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 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되고있다.

누구나 희망과 소원이 따라 마음껏 배우도록 보다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사회의 모든 성인들을 힘입는 존재로 키워주는 가장 위대한 품, 행복의 요람이다.

생명과 건강의 보호자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무병장수를 녀린하여 왔다. 그러나 나라없던 세월 그것은 한갓 꿈에 불과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는 내 조국, 사람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어 무병장수는 꿈 아닌 현실로 될수 있었다.

도시나 농촌이나 차이가 없이, 어린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검진과 갖가지 예방접종사업이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의사당면담제도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보건 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에 의하여 치료예방기관

현실로 꽃피어나는 꿈과 이상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는 인민이 바라는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주고 있는것으로 하여 나날이 더욱 소중해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인민들이 즐겨찾는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얼마나 많이 일떠세웠는가. 장천거리와 류경원, 인

민야외빙상장,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위성과학자주재지구의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 불과 못해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최한한 창조물들이 우리 당의 인민사랑에 떠날들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복받은 청년들이 지켜선 초소

영광군도로보수관리대 황초령도소대원들

은 황초령과 더불어 세대를 이어가며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소대원들은 대부분이 중학교 졸업생들이었다. 그들은 서로가 약속이나 한듯이 멀고 험한 황초령으로 달려와 삶의 보금자리를 쫓았다. 도로소대원이 되던 그날 이대모두의 가슴은 거중한 내 조국의 한부분을 지켜간다는 긍지와 보람으로 세차게 끓어올랐다. 사철 안개와 찬바람으로 하여 풀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황초령의 날씨에 몹시 반박스러웠다. 그 사나운 자연의 투쟁에서 소대원들은 역세게 성장하였다.

한다. 군인군들과 인민들이 때없이 령계에 올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곤 한다. 그 때면 소대원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두고 향심의 총화를 지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감을 생각하곤 한다. 어머니조국은 이들의 소행을 귀중히 여겨 영광의 단상에 세워주었다. 몇해전에는 소대장 서명삼 등무가 극도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참가하고 부수대장 안영민등무가 청년결정대항사에 참가한후에 이 지간

5월에는 홍정철, 강원혁, 신금철, 림정복등 무들이 제2차 전국청년미풍 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오늘도 서명삼, 박경주등 무를 비롯한 이곳 소대원들은 이 땅의 평범한 청년들의 자그마한 보람도 같이 헤아려주고 나라의 행복덩이로 내세워주는 어머니당과 조국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가슴없이 간직하고 평길우에 아름다운 생의 자욱자욱을 새겨여가고 있다. 본사기자 홍성철

참다운 삶을 빛내주는 고마운 품

강계시편의봉사관리소 신발수리공들인 김봉훈, 정춘화부부의 생활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 사회의 합리적인 주인이 되어 자주적인간의 참된 삶을 값높이 빛내어나가고있다.》

강계시의 공로있는 근로자 소개관에는 신발수리공들인 김봉훈, 정춘화부부의 사진도 나란히 붙여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진을 보며 평범한 근로자들의 삶을 값높이 내세워주는 어머니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까지만 하여도 김봉훈, 정춘화부부는 자기들이 신발수리와 인발수리를 맡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김봉훈등무는 어느 한 단위의 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

화동부는 개척동조항의 제봉공이었다. 근면하고 성실한 그들은 집단의 사랑받는 혁신자들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김봉훈등무는 뜻밖의 일로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다. 의뢰일군들의 뜨거운 정성으로 회복은 되었으나 이전처럼 활개치며 걸을수 없게 되었다. 사회보장장을 받게 된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조국을 위해 힘껏 일하거던 나의 꿈은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의 마음을 안고 인민군대원호사업과 사회주의건설장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이렇게 평범한 남과 달리 흐르던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평범한 구두수리공에 불과한 자기를 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소식에 절한 김봉훈등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일러와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축하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김봉훈등무는 자기가 해놓은 자그마한 성과가 소중히 여겨 값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품, 인민이 품고있는 주인된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하도 고마와 눈시울을 뜨겁게 적시었다. 인민의 대표로 선출된 날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하였다. (내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리라.)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삶의 보금자리는 피로써 지켜야 한다

《반동놈들이 정체를 드러내 놓고 말하더니 사적색소. 우리가 후퇴를 한다면 그 제놈들의 세상이 다 뒤흔들고있을것 같다.》 자기들이 버린 낡장을 으스러지게 거머쥔 당원들은 격분을 참지 못했다. 《천만에, 어림도 없소. 그놈들의 세상은 영원히 오지 못할 것이요.》 《머지않을 놈들을 단박에 요정습시다.》 봉진리의 10여명 당원들은 계급적원수놈들을 달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놈들과 한주일 동안이나 산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있는 사이에 적들은 어느덧 황주를 지나 중부이북에까지 기여들었다. 산악회 고향마을에서는 검은 연기가 띠처럼 오르고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불타는 마을을 바라보는 봉진리 당원들의 눈에서는 불이 일었다. 눈앞으로 행부년처럼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평생 소원이었던 땅의 주인이 되어 울고웃던 그 봉남들과 해마다 트락이 춤다하게 단말을 거두어들이던 가을날들, 당원들을 받아안고 감정의 눈물짓던 날들과 우리 글을 깨치던 그밤들... 그 5년동안 예로부터 알이 크고 지혜없이 민주선전설로 달려온 당원들앞에 당세포위원장 전지옥등무가 나섰다.

신뢰시 신뢰 남산의 양지바

신뢰시 신뢰 남산의 양지바른 언덕에 하나의 묘소가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당시 후원군인민회의의 대의원, 통일면면명위원장이었던 김일형 동무가 여기에 누워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김일형동무를 체포한 원수놈들은 악질맹장이를 붙잡았다고 하면서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고 발뚎을 뽑아버리는 등 별의별 악착한 고문을 다 들이쳤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놈들은 최종로 그의 코를 깨어 잘고집내면서 그의 가슴속에 각인된 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버리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어찌 참된 삶을 얻지 못한 고마운 삶의 품, 평명하신 김일형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을 순간인들 속되게 할수 있느냐. 그의 신념을 꺾을수 없게 되자 놈들은 지옥에 가서 네놈의 《피》를 씻으려고 꼴이 어대며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 후의 순간 김일형동무는 원수놈들을 눈멀리 추상같이 해치웠다. 《이 원수놈들이, 특히히 들으라. 평명하신 김일형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김일형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날의 체험은 오늘날도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보람찬 삶을 얻지 못한 고마운 어머니님, 공화국을 위해 열심히 일한것이, 열렬히 지지한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복수를 부르짖는 그의 명문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과 교훈이다. 고마운 어머니님, 공화국을 사랑하라. 목숨바쳐 지키라! 본사기자 조경철

그날의 웨침

그들의 신념을 꺾을수 없게 되자 놈들은 지옥에 가서 네놈의 《피》를 씻으려고 꼴이 어대며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다. 그 후의 순간 김일형동무는 원수놈들을 눈멀리 추상같이 해치웠다. 《이 원수놈들이, 특히히 들으라. 평명하신 김일형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김일형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그때로부터 수십년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날의 체험은 오늘날도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 보람찬 삶을 얻지 못한 고마운 어머니님, 공화국을 위해 열심히 일한것이, 열렬히 지지한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복수를 부르짖는 그의 명문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움과 교훈이다. 고마운 어머니님, 공화국을 사랑하라. 목숨바쳐 지키라! 본사기자 조경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에 넘쳐있는 참관자들 -조국해방전쟁기념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